전남 수산물 수출 5회 연속 신기록

〈반기별〉

올 상반기 1억1728만 달러…김 절반 이상 차지

전남 수산물 수출액이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2016년 상반기 이후 5반기 연속 기록 경신이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남 수산물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 늘어난 1억1728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국 수출액은 7.4% 증가해 12억 달러를 달성했다.

전남 반기별 수출액은 지난 2016년 상반기 8948만 달러 이후 5반기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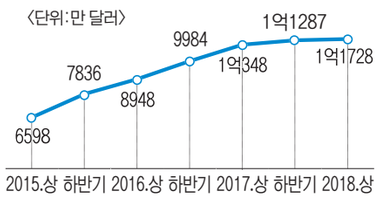
특히 지난해 상반기 1억 달러(1억300만 달러)를 돌파한 이래 하반기 1억1287만 달러, 올해 상반기 1억1728만 달러를 기록, 반기마다 4~9%의 성장세를 보였다.

전남 수산물 수출 효자는 김이었다.

김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5.9% 늘어난 6013만 달러를 기록, 수출 품목 중 절반을 넘게 차지하며 수산물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김은 '농수산업계 반도체'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수출 증가세가 눈에 띄어 올해 수출액 1억 달러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남도는 전망했다.

품목별로는 김에 이어 전복 2135만 달러, 미역 1069만 달러, 톳 849만 달러 순이었다.

■ 전남도 수산물 반기별 수출 실적



전복의 경우 사드 영향 등으로 중단된 중국 수출이 재개되면서 5월부터 수출이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상승한 1000만 달러 실적을 기록했다.

상위 5개 수출 상대국별 수출액은 일본 5661만 달러, 미국 2212만 달러, 중국 1487만 달러, 대만 447만 달러, 캐나다 380만 달러 등을 기록했다.

중국산 건조 김 작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중국 수출은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줄었지만, 미국·일본 등 수출은 탄탄한 흐름을 보였다. 미국 수출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37.3% 성장세를 나타냈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전복 생산이 급증하고, 중국 수출이 재개되면서 활전복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복 활 컨테이너 제작을 완료, 수출 시험 중에 있다"며 "수산물 수출기업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수산물 수출 상승세를 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밖에서 일하니 출장비 달라" 광주시 공무직들 소송제기

노조 "시가 임금협약 어겨" 市 "본연 업무라 출장 아냐"

광주시청 공무직이 과적 차량을 단속하고, 길거리의 나무와 꽃을 관리하는 근로 행위에 대해 광주시청이 출장비를 따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공무직 5명이 "광주시청사가 아닌 외부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만큼 출장여비를 달라"며 광주시에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들 공무직은 소장을 통해 "광주시공무직노동조합과 광주시가 지난 2017년 10월 19일 체결한 임금협약서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광주시가 이를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광주시와 공무직노조는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고 협약했다.

소송을 낸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직원 A씨는 "제한(과적) 차량 단속 및 홍보, 도로운행 제한차량이 도로주행시 단속, 적재중량초과방지 홍보 업무를 위해 출장을 가고 있는 만큼 출장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원 B씨와 C씨는 여성 긴급전화 상담, 성·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직원교육 훈련 운영 및 사후관리사업 운영, 구인업체 및 구직자 발굴 등을 위해 수시로 외근을 한다며 출장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푸른도시사업소 직원 D씨는 양묘 및 조경자원관리, 도시녹화를 위한 수목 및 화훼류 식재 관리를 위해 청사 밖 근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직원 E씨는 도로관리 및 차선도색, 도로순찰, 제설작업 등을 하며 수시로 출장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4시간 이상 외근을 했는데도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개인당 최소 23만원에서 최대 42만원까지 5명에게 총 175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도로보수원 등이 업무를 위해 근로장소(현장)로 나가는 것은 본연의 업무이므로 출장이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들의 근로 장소가 외부이기 때문에 출장으로 보기 힘들다"면서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공무직의 추가 소송 등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 일용직에서 무기계약직에 이어 공무직으로 명칭이 변경된 공무직은 조경, 녹지, 도로관리 등의 일을 하며 광주시에는 749명이 근무 중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빛가람 치유의 숲에서 가족과 함께 힐링하세요" 25일까지 홈페이지 예약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5일까지 '전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에서 가족과 함께 힐링하는 무료 '어울林(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어울林(림) 치유 프로그램'은 올 여름 폭염으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가족과 함께 힐링하는 산림치유 특별 체험 이벤트로 마련됐다.

자율신경, 스트레스 검사 등 건강 측정, 마음을 열고 차를 마시면서 심신을 이완시키는 다담체험, 건강호흡법 익히기, 아로마테라피 체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아로마테라피 체험은 ▲모링가 비누 만들기 ▲벌레 기피제 만들기 ▲피로회복 입욕제인 바스붐 만들기 ▲모기 물린데 바르는 천연 버물리 만들기 ▲피톤치드 천연향수 만들기 등 요일별로 다르게 진행한다.

대상은 초등생 이상 동반 가족 또는 친지 모임으로, 팀별 15명 이내까지 참여 가능하다. 프로그램 이용료는 무료이지만, 아로마테라피 체험의 경우 재료비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여름 특별 프로그램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산림치유지도사와 전화상담 후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된다.

정보미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산림복지팀장은 "여름 특별 프로그램이 무더위를 식히고, 힐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빛가람 치유의 숲 산림치유프로그램이 도민의 행복과 건강한 삶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동구, 폭염 재난수준 대응

임택 광주시 동구청장(오른쪽)이 6일 오전 광주 동구 계림8구역 아파트건설현장을 찾아 폭염 안전대책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임 구청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개최, 폭염을 긴급재난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청년 쉼카페·창업메카 조성…광주시, 일자리 추경사업 보고회

민선 7기 광주시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이용섭 시장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 따라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에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광주시는 추경을 통해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 사업 49건을 신규 발굴하는 등 지역 일자리 확대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6일 광주시는 각 실·국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제1회 추경 관련 일자리 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추경 심의를 앞두고 각 실국에서 추경에 반영할 신규 일자리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에 따르면 광주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일자리 사업 109건에 717억84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다.

애초 광주시는 추경을 통해 일자리 관련 계속사업 42건 517억7700만원이며, 신규사업 18건 97억1400만원을 반영하려고 했다가 최근 49건의 추가 신규사업을 발굴해 102억9300만원을 추가 배정했다.

광주시 일자리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청년창업청년취업winwin프로젝트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업페스티벌 등이다.

새롭게 발굴된 일자리 사업은 ▲찾아가는 청년 쉼카페 운영 ▲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더불어일자리사업 ▲도시민양봉농가 육성 ▲생태계교란생물 관리반 운영 ▲청년창업 메카 조성 등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전 "한전공대 설립 의지 확고"

이용섭 시장과 논의서 밝혀

한국전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전공대 축소 설립 우려에 대해 "한전의 한전공대 설립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고 밝혔다.

6일 이현빈 한전공대 설립단장 등 한전 관계자들은 광주시청에서 이용섭 시장을 만나 한전공대 설립에 관한 추진사항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현빈 단장은 "한전 입장에서도 한전공대 설립은 국정과제이자 자체적인 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일이다"며 "일부 논란이 됐던 개교 지연, 설립 규모 축소 등은 본격적인 설립 추진에 앞서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 정치권의 협력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일 뿐 한전의 설립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반적으로 대학교가 설립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80여 개월인 점을 감안해 일각에서 개교 시기가 2025년 이후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한전은 개교 목표를 2022년 3월로 잡고 있다"며 "이러한 개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협조와 정부차원의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전공대의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지만 최적의 규모, 정원, 예산 등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검토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할 계획이다"며 "지자체와 정부의 협조 아래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적극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애초 공약대로 2022년 3월에 개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한전공대 설립은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돼서는 안 된다"면서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민에게 한 약속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의 경쟁력 있는 지역 인재 육성은 물론 에너지밸리 성공 등 광주전남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한전에서 공약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의 새이름
신세계안과
SHINSEGAE
스마일 / 라식 / 라섹
노안 / 백내장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융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